

2022학년도 연세대학교 모의면접구술시험

인문·사회·통합 계열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가] 15세기 무렵 유럽에 전염병이 창궐하자 의사들은 대립했습니다. 상당수의 의사는 미아즈마(miasma), 즉 냄새 나는 나쁜 공기가 전염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염병에 걸리면 악취가 나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원인은 아닙니다. 미아즈마는 분명 상상 속의 독성 물질입니다. 이들에 따르면, 숨을 쉴 때 몸으로 들어오는 우주의 기운인 프네우마(pneuma)는 건강을 유지하는 힘이고 미아즈마는 이를 방해하는 나쁜 기운입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미아즈마 가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과거의 선배 의사들은 감염병에 걸린 환자에게 맑은 공기가 있는 시골에서 요양하라고 처방했습니다. 깨끗한 공기, 맑은 물을 마시면서 충분히 쉬고, 프네우마로 몸을 다독이라고 했죠. 그러나 후배 의사는 그런 '구닥다리' 처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신으로 예방하고, 항생제로 치료했죠.

하지만 19세기 중반 저명한 의사들이 참석한 국제회의에서 일부 의사들은 여전히 미아즈마 이론을 주장했고, 첫 회의는 결렬되었습니다. 당시 감염병은 더러운 공장, 비위생적인 빈민가에 사는 가난한 이와 전쟁터에 나선 젊은이의 목숨을 주로 노렸습니다. 미아즈마 이론은 틀린 주장이었지만, 항생제와 백신이 진정한 건강을 보장하지 못하리라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미아즈마 이론을 주장한 일부 의사들은 빈민의 비참한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 즉 그들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으려는 시도가 무산될까 걱정했습니다. 그들에게 미아즈마, 즉 냄새 나는 공기는 빈곤과 차별, 비위생과 굶주림의 상징이었죠.

급속한 도시화와 환경 파괴, 공장식 사육, 무분별한 세계화로 인한 물자와 인원의 급격한 이동, 충분한 자원을 비축할 수 없는 의료 공급 시스템, 집중화된 대형병원에 의존하는 의료 시스템 등은 모두 현대사회의 '미아즈마'입니다. 신종 감염병을 양산하고, 세계적 대유행을 일으키는 요인입니다.

[나] 연방 보건 당국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마스크 없이 여러 곳을 갈 수 있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한 직후 미국 최대 간호사 조합이 이를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팬데믹(pandemic)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7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미국 간호사 조합(National Nurses United)'은 질병 통제 예방 센터의 권고사항이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간호사를 포함한 일선 직원들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간호사 조합의 지도자들은 전국 1일 평균 3만 건 이상의 감염, 바이러스 변종의 확산, 예방 접종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예방 접종이 계속 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여러 팬데믹 대응 방역 지침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대표는 "여전히 팬데믹의 한가운데 있는 순간에 수정된 지침이 실행되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환자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이나 몇 달 전과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매우 많은 수입니다."

[다] 병진: 전 국민이 100%에 가깝게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이제 마스크를 벗고,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수철: 당연하지. 난 해외 여행 계획도 잔뜩 세워 두었어.
병진: 국가마다 백신 접종률이 다른데 해외 여행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을까? 더구나 어떤 지역에서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말이야. 사람과 물자가 계속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계 모든 국가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수철: 그런가? 하지만 백신접종률이 곧 100%에 육박하는 국가들이 있을 테고, 벌써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제를 철회한 국가도 있지 않아?
병진: 글썄. 국가별로 경제적 문제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규제 완화 조치를 서두르는 경우도 많아. 각 국가에서 발표하는 감염자 수나 백신접종률 관련 통계 자료도 같은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말이야.

[라] 다음은 7개 국가의 백신접종률(그래프1)과 해당 국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변화 내용(표1), 그리고 그중 E국가의 계층별 'COVID-19' 감염률과 백신접종률(그래프2)을 나타낸다. A, B, C 국가는 모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 미만이고, 인구 1000명당 의료진의 수는 50명 미만, 영아사망률은 20명 이상이다. 반면 D, E, F, G 국가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이고, 인구 1000명당 의료진의 수는 100명 이상, 영아사망률은 1명 미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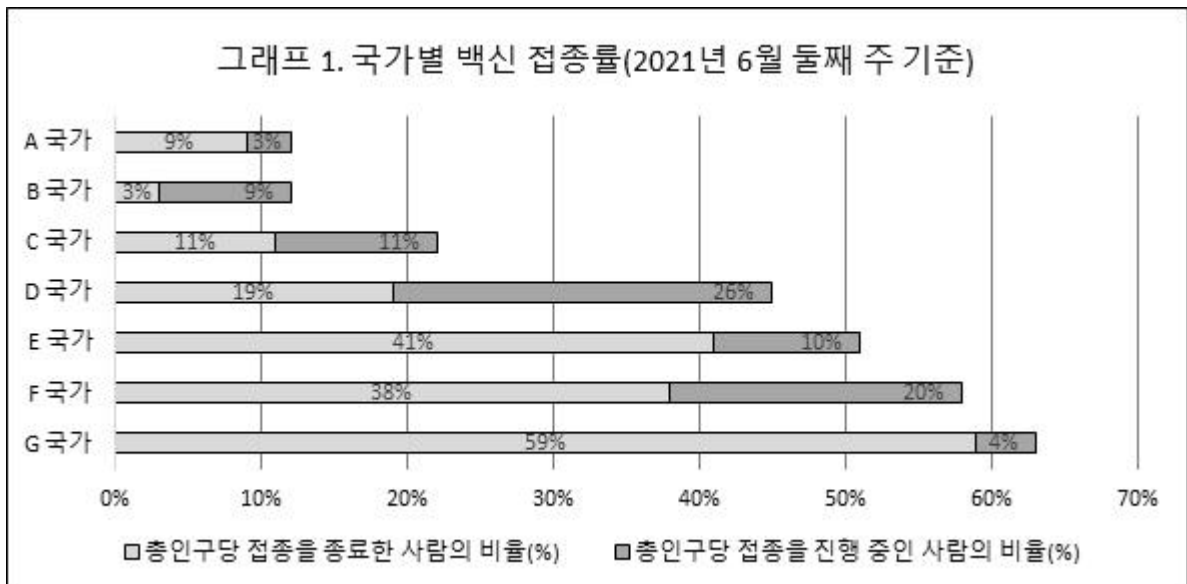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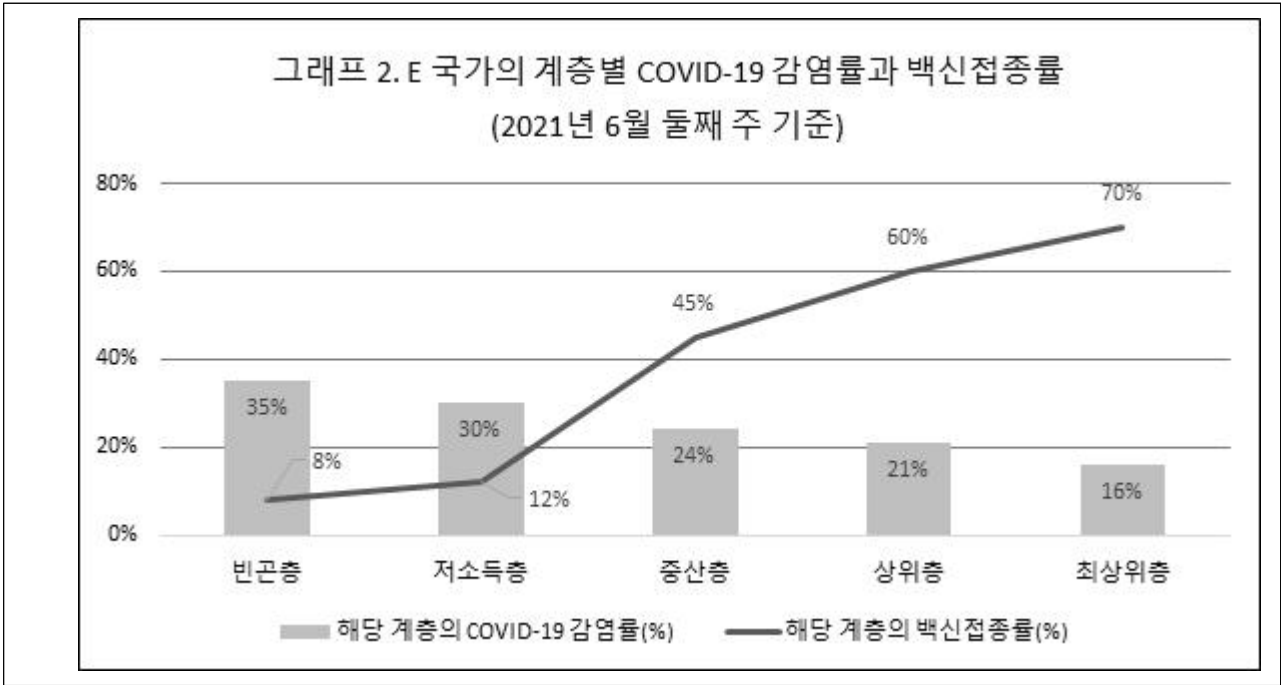


표 1. 2021년 6월 둘째 주 기준 각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변화

- A 국가 :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강화함.
- B 국가 :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장 높은 수준인 봉쇄 단계까지 격상시킴.
- C 국가 :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강화함.
- D 국가 :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함.
- E 국가 :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함.
- F 국가 :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려다가 다시 강화함.
- G 국가 :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함.





[문제 1] 제시문 [다]의 병진의 입장에서 제시문 [가]와 [나]의 논지를 분석하시오.(40점)

[문제 2] 다음 두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60점)

- (1) 제시문 [가], [나], [다] 각각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라]의 그래프를 해석하시오.
- (2) 백신접종률 증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완화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